대구경북RHRD 연구보고서 2006-10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이재철 · 이도선
(동양대학교)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차 례

□ 연구요약 ····· 3

제1장 서론 ·····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8

제2장 문헌연구 ····· 13

1. 귀농(인)의 정의, 유형 그리고 과정 ····· 13
   (1) 귀농(인)의 정의 ····· 13
   (2) 귀농(인)의 유형 ····· 15
   (3) 귀농의 과정 ····· 17

2. 귀농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19
   (1) 강대구(2005)의 연구 ····· 19
   (2) 서만용・구자인(2005)의 연구 ····· 20
   (3) 정한모(2002)의 연구 ····· 21
   (4) 정대영(2001)의 연구 ····· 21
   (5) 정철영(2000)의 연구 ····· 22
   (6) 신정수・이병오(1999)의 연구 ····· 22
   (7) 김형용(1998)의 연구 ····· 23

3. 귀농 현황 및 추이 ····· 24
   (1) 연도별, 시도별 귀농 추이 ····· 24
   (2) 귀농인의 영농 종사분야별 현황 ····· 25
   (3) 귀농자의 연령별 현황 ····· 25

(4) 2004년 경북 귀농 현황 ····· 26

4. 귀농지원정책 ····· 28

제3장 실증분석 ····· 41

1. 실증분석 방법 및 절차 ····· 41

2. 실증분석 결과 ····· 42

3.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54
(1) 귀농인 인구통계적 특성 요약과 시사점 ····· 54
(2) 귀농유형, 동기 그리고 지원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55
(3) 만족도, 권유의향, 도시회귀의향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56
(4) 종사 영농, 애로사항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57
(5) 귀농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필수과목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59
(6) 교육의 근거와 기간, 귀농교육정보센터의 필요성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59

제4장 결론 ····· 63

■ 참고문헌 ····· 65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연 구 요 약

<연구요약>

본 연구는 귀농 및 귀농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경북지역에 적합한 귀농인력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귀농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귀농년도, 귀농인 학력, 귀농이전 직업, 귀농인 현재 연령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만족도 관련 항목으로 전반적 만족도, 귀농 권유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귀농유형, 귀농 동기, 귀농지역 인지 계기, 공공기관의 지원, 마을주민의 지원, 영농종사 종류, 애로사항, 정보수집 방법, 귀농결정에 대한 현재의 심경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귀농교육 관련 항목으로 귀농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 필수내용, 영농기술교육 내용, 귀농교육의 근거, 적정 교육 방식 및 기간,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젊은 귀농인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도시출신의 귀농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향후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정책의 수립을 통해 농촌 출신과는 상이한 경험과 사고를 가진 도시 출신의 잠재 귀농인력을 유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향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귀농지역을 탐색하고 결정했다는 응답이 35%를 차지했으며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특혜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처럼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잠재 귀농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귀농·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각종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귀농인들의 높은 귀농결정 자부심과 만족도를 유지하고 또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관 및 단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농촌생활에 만족한 귀농인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동시에 잠재 귀농인들에게 우호적인 구전을 전파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축적된다면 특정 지역의 귀농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은 명확하다. 다섯째, 귀농인으로 하여금 도시 회귀를 고려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낮은 소득과 자녀교육이었는데 향후 귀농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귀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에 그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귀농 후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영농기술 및 경험의 부족' '영농자금 조달' '농기계 구입과 수리'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고향이 농촌이던 도시던 관계없이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과 자금조달이야말로 귀농인의 가장 큰 애로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영농경험을 전수해 줄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의 확보 및 활용과 함께 귀농 멘토링 제도의 실시 혹은 귀농지도 전문가 풀의 확보와 운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귀농인들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조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귀농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하면 또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 부설 귀농교육센터의 운영 혹은 대학 위탁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귀농인 대상의 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농산물 판매기법 및 농업마케팅 교육에 대해서도 귀농인들의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귀농교육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판매기법 교육과 함께 귀농인들에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개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장밀착형 귀농교육을 실시할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따라서 귀농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귀농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 귀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된 귀농인에게 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선후배 귀농인들이 모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귀농인의 유치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의 농촌은 농업노동력 면에서의 고령화와 부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와 함께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 부족 즉 후계 농업 인력의 고갈로 인해 이제 농촌 그 자체의 존폐를 우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990년부터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즉 일종의 사회현상 혹은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귀농현상 혹은 전원생활 붐은 농가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와 유휴화를 막고 농업후계인력의 확보 곤란을 타개하며 나아가 청년층 부족으로 인한 활력 상실 및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 각 도 및 시를 통틀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귀농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북지역의 농업이 가지는 잠재력에 대한 외부인의 호의적 평가의 반영이며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로 모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귀농을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북지역 농촌의 인구유입과 활력을 도모하는 노력의 경주는 화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귀농인력 유인 및 정착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 함께 경북지역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귀농인 관련 정책과 제도가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귀농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경북지역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귀농희망자 혹은 잠재귀농인의 개별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귀농정책이 긴요하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귀농의 유인전략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학적인 프로그램은 질과 양에 걸쳐 부족하며 또 이러한 정책 입안의 토대가 될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연구 역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귀농 관련 기존 정책과 연구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경북지역에 정착한 귀농인들 대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귀농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향후 귀농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귀농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요체가 될 수 있는 주요 방안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귀농의 올바른 개념 및 방향 정립과 함께 충실하고도 체계적인 귀농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귀농 혹은 귀농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경북지역에 적합한 귀농인력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귀농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들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설문지를 작성해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경북지역 귀농인이며 주로 봉화와 영주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봉화지역의 경우 봉화군에서 실시한 귀농인 대상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영주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협조 아래 직접 귀농인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총 6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범위는 먼저 귀농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귀농년도, 귀농인 학력, 귀농이전 직업, 귀농인 현재 연령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반적 만족도, 귀농 권유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이유 등 만족도 및 회귀 의향 항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귀농유형, 귀농 동기, 귀농지역 인지 계기, 공공기관의 지원, 마을주민의 지원, 영농종사 종류, 애로사항, 정보수집 방법, 귀농결정에 대한 현재의 심경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귀농교육 관련 항목으로 귀농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 필수내용, 영농기술교육 내용, 귀농교육의 근거, 적정 교육 방식 및 기간,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제2장 출산력 추이

제2장 문헌연구

1. 귀농(인)의 정의, 유형 그리고 과정

(1) 귀농(인)의 정의

귀농에 대해 제 사전은 '다른 일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돌아감'이나 '농사짓기를 그만둔 사람이 다시 농사일로 돌아감' 혹은 '관직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함'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의 경우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 즉 이전에 어디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했던 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를 귀농으로 간주한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같은 민간귀농단체는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생태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귀농을 정의하고 있다.

귀농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귀농인 혹은 귀농자는 귀농행위의 주체로서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귀농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귀농 제도 및 정책 그리고 동향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귀농인에 관한 연구는 귀농인의 애로사항, 정착과정 그리고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귀농과 귀농인이 함께 고려되고 있고 연구 초점에 있어서도 구분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귀농인에 주로 초점을 맞춘 연구보고서 등의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하(1998)는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를 바꾸고 그 곳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귀농인을 정의하고 있다. 김형용(1998)은 농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새로이 영농을 시작하는 자로 귀농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일(1998)은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현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삼은 'U-turn 귀농인'과 도시출신 또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서 타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업을 직업으로 삼은 '취농인(取農人)'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귀농인을 농촌 출신 귀농인과 도시 출신 귀농인으로 크게 나누고 여기에서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 즉 농촌 주재 영농 무경험자를 취농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정관(1998)은 귀농자를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혹은 농촌 출신으로 농촌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이농 후 비 농업적 직업에 갖고 있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환 후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김주현(1999)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귀농인을 정의하면서 농촌출신의 귀농과 함께 도시출신의 귀농도 포함해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병철(2000)은 귀농을 반자연적인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귀환하는 일로 귀농을 정의하였다. 즉 귀농은 세상을 등지거나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려는 행위가 아니라 생계와 삶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삶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며 동시에 생계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귀농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철영(2000)은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귀농인을 정의하고 있고 서만용과 구자인(2005) 귀농인을 농촌의존형이면서 귀농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권역 내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상시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연구자별 귀농인 정의

이동하(1997)	-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 바꾼 후 그 곳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박영일(1998)	-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U-tern 귀농자) - 도시 출신 혹은 재촌 비 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취농인)
김형용(1998)	-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에 들어와 영농을 하는자 또는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새로이 영농을 시작한 자
이정관(1998)	-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혹은 농촌출신으로 농촌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이농 후 비 농업적 직업에 갖고 있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환 후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김주현(1999)	-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이병철(2000)	- 반자연적인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귀환한 사람
정철영(2000)	-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
서만용· 구자인(2005)	- 농촌의존형이면서 귀농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권역 내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상시 거주자

이상과 같이 연구자별로 또 기관단체별로 귀농 혹은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의가 어떠하던 관계없이 현재의 귀농 관련 제 경향과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귀농 혹은 귀농자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 혹은 영농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귀농은 농업을 소득기반으로 하는 영농종사자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농촌은 농업이 주소득원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귀농인의 경우 은퇴 후 여생을 친환경적 여건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귀농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귀농인들에게 있어 영농은 주소득원이 아닌 자급자족을 위한 식품의 취득용 혹은 소일꺼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귀농 혹은 귀농자의 범위를 비농업인 혹은 전원생활 추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귀농지역의 특성과 속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 또는 도시의 거대광역화로 인해 도시 주변부와 농촌 간의 경계가 매우 애매해 지고 있다. 즉 도시 속의 농촌 혹은 농촌 속의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의 급속 확산 덕택에 이제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대도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귀농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애매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와 현재의 귀농양태를 고려해 볼 때 이제 귀농의 정의는 지금까지의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와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즉 농업관련 유통에 종사하거나 혹은 유기농 전문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단지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귀촌하는 것까지도 포괄해서 귀농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 혹은 귀농인을 도시출신이던 비도시출신이던 관계없이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생계와 관계없이 단지 농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농촌에 오는 행위와 사람으로 정의한다.

⑵ 귀농(인)의 유형

서규선 · 박병덕(1997)은 귀농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U-tern, J-tern 그리고 I-tern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U-tern 귀농자는 수적으로 가장 많은 귀농자로서 고향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간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차 고향농촌으로 복귀한 귀농인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부모와의 불화 혹은 결혼문제 등을 도피 혹은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간 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후 고향으로 복귀하는 계획적인 U-tern 귀농인과 장기간 고향을 떠나 도시생

활을 하다가 실직, 퇴직 등의 도시로의 추출(pushers)요인에 의해 고향으로 복귀하는 추출된 U-tern 귀농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J-tern 귀농인은 고향농촌이 아닌 무연고의 타 지역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말하고 I-tern 귀농인은 도시에서 출생해 줄곧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농촌생활이나 영농에는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 2> 귀농자 유형

구분		정의
U-tern	U-tern 귀농인	고향농촌에 거주하다 도시로 간 후 다시 고향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
	계획 U-tern 귀농인	특정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에 가서 생활하다가 부모 은퇴 혹은 결혼에 성공한 후 고향 농촌으로 귀환
	추출 U-tern 귀농인	장기간 고향농촌을 떠나 도시생활을 하다가 실직, 퇴직, 질병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 요인에 의해 고향농촌으로 귀농
J-tern 귀농인		고향농촌이 아닌 무연고의 타 지역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인
I-tern 귀농인		농촌생활 무경험의 도시출신으로 도시에서 취업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자료원 : 서규선・박병덕(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재정리

한편, Roseman(1981)은 도시인구의 농촌이주 유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쾌적환경추구자로서 이들은 환경이 깨끗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곳에 자택을 마련한 후 도시와 농촌을 왕래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유층을 비롯한 문필가, 예술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조기퇴직자로서 퇴직금의 재투자나 연금에 의한 합리적인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진입하는 40대에서 50대까지의 화이트 컬러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실제이주자로서 이들은 노후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대안문화추구자로서 도시생활이 주는 스트레스와 불합리에 대항하고 친환경적 삶을 실제로 구현하고 사회적 운동으로서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⑶ 귀농의 과정

일반적으로 귀농희망자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귀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귀농 결심

귀농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혹은 때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귀농을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귀농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과 가족의 특성과 함께 현재의 농촌실상 및 미래의 농촌 모습 등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농촌과 농업 그리고 관련 환경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생활을 포기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각종 편익으로부터의 소외와 함께 농촌생활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농촌생활이 자녀들에게 가져다 줄 이익과 손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② 가족 동의

귀농은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귀농인 가족의 공감대 형성 및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 처자를 도시에 남겨 두고 혼자 귀농할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농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가정불화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가족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며 여기에 더해 가능하다면 친가와 외가의 지원 및 협조까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영농분야 및 농작물 선택

성공적인 귀농 및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후 주로 영농할 분야 및 농작물 선택이 중요하다. 즉 삶의 터전으로 정한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등에 바탕으로 둔 영농 분야 선택 및 농작물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귀농 성공 및 실패사례 에 대한 연구 및 농산물 경작 동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고 또 자신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작물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농분야의 선택 및 작물의 선택에는 자금 규모, 귀농예정지역, 필요한 영농지식 및 기술,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④ 정착지 물색

귀농지역을 선택할 때 우선은 고향으로서 부모나 친척 혹은 지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귀농의 궁극적 목적이나 종사하고자 하는 영농분야 및 농작물에 따라서는 고향농촌이 아닌 타 지역 농촌을 과감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출신 귀농인의 경우 정착지 물색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수의 귀농예정지역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영농기술 습득

제 3 단계에서 선택한 종사 영농분야 및 농작물에 따라 요구되는 영농지식 및 기술은 상이해 진다. 따라서 귀농 전 조사를 통해 귀농교육 실시기관 그리고 실시시관별 집중 교육 분야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영농기술 및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목별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와 함께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같은 민간 차원의 단체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⑥ 주택 및 농지 구입

최종 선택한 귀농후보지에 귀농인의 자금으로 감당 가능한 주택과 농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의 검토와 함께 구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임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장 등 지도층 주민과의 교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영농계획 수립

이상의 단계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는 귀농 후 본격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영농계획을 수립할 때는 영농 종류에 따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산과 함께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주 수입원 확보에 긴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생산 이전에 미리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기후에 의해 생산량 및 가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귀농 실행

귀농을 실제로 했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귀농인들의 경우 농업에 대한 지식은 학습을 통해 미리 습득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요소인 경험은 실제 겪으면서 터득해야만 한다. 물론 선배 귀농인들을 통해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농기술의 학습을 위해 귀농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이웃 독농가 그리고 선배 귀농인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2. 귀농 관련 선행 연구 분석

(1) 강대구(2005)의 연구

강대구(2005)는 미래 농업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력개발을 전제로 귀농자들의 특성별, 단계별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인력의 실태 파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귀농 각 단계별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귀농 인식단계에서는 귀농동기가 농촌생활 선호,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자녀에게도 농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귀농동기가 퇴직 후의 삶, 인간다운 삶 등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정보원에서도 전자는 농업관련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귀농 시 필요한 사항에서도 전자는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 반면, 후자에서는 경영기술, 재배기술, 농촌의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나 귀농동기에 따라 그 준비 및 귀농과정에서의 지원은 상이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귀농준비단계의 귀농자들은 영농능력 수준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 · 지식적인 면 등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중간 정도였으며, 귀농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자금, 재배기술, 농기계(시설) 구입자금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착 자금의 융자와 함께 지속적인 영농상담의 제공 그리고 관련 정보 및 교육실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귀농단계의 사람들은 귀농에 있어서의 곤란으로 초기

에는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정착기로 갈수록 자금문제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판매의 곤란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대부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귀농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정착자금의 융자 및 지원, 귀농 정보제공 및 지속적 상담 그리고 귀농자 교육 및 연수의 체계적 실행을 제안하였다.

⑵ 서만용・구자인(2005)의 연구

서만용 · 구자인(2005)은 농촌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귀농자들의 농촌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농촌정착과 귀농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인구이동의 push(배출)-pull(유입) 모형에 따라 귀농에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현상은 거시적인 경제모델보다는 미시적인 사회 생태적 인구이동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연구 성과로 제시하였다. 즉 이들의 조사에서 귀농자들은 매우 낮은 경제적 소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가 귀농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귀농 후 문제점 1위가 생계유지 수단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순히 귀농결정이 경제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분논리 역시 설득력이 약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서로 상호동기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귀농선택과정에서는 삶의 질 가치 추구가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이유는 귀농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연구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청년인력의 귀농은 농촌의 인적 재생산구조 혹은 외부공급구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므로 향후 농촌정책은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보다 농촌의 활력을 주도할 활기 있는 농촌주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인구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전입과 전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추어 정책수립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귀농시행 이후 최소한의 귀농 부 적응자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즉 귀농에 대한 환상적인 사고만으로 현실성 없는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귀농자 스스로 귀농정착 과정마다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⑶ 정한모(2002)의 연구

정한모(2002)는 귀농인 대상의 심층면담을 통해 귀농인들의 농촌생활 적응 현황 및 효과적인 영농정착의 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귀농인들의 기존 지식과 태도 등이 현 상황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귀농사유에 따라 적응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귀농 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진 귀농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귀농인들에 비해 농촌에서의 생활과 경제적 성취 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귀농인들은 귀농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나 귀농 후의 곤란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귀농생활의 곤란으로 인해 정부의 영농정책 및 귀농정책에 반감을 가지며 동시에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도 불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귀농자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지속적 수행과 함께 귀농인의 특성과 상황에 기초한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귀농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일부 불공정한 현실을 감안하여 귀농정책 시행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병행도 제안하였다.

⑷ 정대영(2001)의 연구

정대영(2001)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의무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 영농 작목으로는 경종분야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영농을 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수준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이 후계인력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진로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종사, 미결정, 농업 외 취업, 이농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농의 이유로는 저소득, 농업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도, 부모님과의 의견 불일치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진로결정의 어려움으로는 소득보장의 없음, 결혼 및 자녀교육 그리고 열악한 농촌생활 순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과 함께 농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사회복지 및 생활 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영(2001)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후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명확한 신념을 가진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영농기술 교육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준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 ·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컴퓨터 및 정보 교육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편, 농촌정착 애로사항은 영농기반 미약 및 자금부족, 적정소득의 무보장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융자금의 지원과 함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보장과 생활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므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원 개발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⑸ 정철영(2000)의 연구

정철영(2000)은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귀농희망자 대상의 영농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귀농정책과 귀농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귀농희망자들은 다양한 교육수준, 전직, 영농희망분야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분석이 필요하며 한시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이 아니라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 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귀농교육에 대한 인식은 귀농희망자와 귀농교육훈련 담당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귀농교육 이해당사자인 귀농희망자, 귀농교육훈련담당자, 귀농정착자 등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귀농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인 자금지원과 귀농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귀농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희망자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것과 유인된 사람들에게 영농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전자는 정착자금을 통해 가능하고 후자는 귀농교육훈련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러한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귀농희망자들이 귀농을 결정한 후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귀농희망자의 모집에서 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⑹ 신정수 · 이병오(1999)의 연구

신정수 · 이병오(1999)는 춘천YMCA의 귀농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귀농의 주요 과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영농경험이 없었으며, 귀농의 이유로는 건강과 조용한 농촌생활의 영위와 농업의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귀농을 꺼리도록 하는 요인은 자녀교육과 문화생활의 소외 그리고 의료 및 주거불편 등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또 귀농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의 경우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과 토지확보 그리고 영농자금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귀농교육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현장견학과 대화의 시간 그리고 귀농 성공사례 교육으로 파악되었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영농계획의 수립과 현장견학 실습의 확대 그리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의 실행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사항은 체계적 귀농정책의 추진과 귀농자 상담실 운영 그리고 농지구입 및 임대 알선 등이었다.

⑺ 김형용(1998)의 연구

김형용(1998)은 전남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먼저, 귀농사유로는 농업에 대한 장래의 기대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영농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수혜의 어려움과 영농정보취득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영농정보의 수집방법의 경우 친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TV, 인터넷 등이었다.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으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문화적 생활의 제약, 도로 교통의 불편, 의료 및 주거불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교육문제는 귀농 후 농촌생활에 가장 큰 불편사항이면서 귀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심사항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의 경우 귀농자의 47.7%가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귀농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5.8%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형용(1998)은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농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 지역별 영농모델의 설정, 귀농지원센터의 설립, 영농자금지원의 확대, 인터넷 등을 통한 영농정보의 보급, 경지 임대차 및 휴경지의 알선, 귀농자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귀농정착 특별법의 제정, 생산자조직 가입의 알선, 농촌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3. 귀농 현황 및 추이

(1) 연도별, 시도별 귀농 추이

귀농자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1990년 이후 2005년 12월까지 귀농 가구 수는 23,943가구로 파악되었다. 귀농가구의 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8년과 1999년이며 2000년에 대폭 감소한 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귀농현황

구 분	합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귀농가구수	23,943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누 계	23,943	3,285	5,345	7,186	13,595	17,713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23,943
구성비(%)	100	13.7	8.6	7.7	26.8	17.2	4.8	3.7	3.2	3.7	5.4	5.2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90년 이후 귀농현황자료'

시도별로는 경북에 가장 많은 귀농가구가 유입되었고 다음으로 경남, 전남, 전북의 순이었다. 경북의 연도별 귀농가구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에 무려 1,171명이 귀농하여 경북 전체 귀농가구수의 25.7%를 차지했다. 1998년 이후 귀농가수는 감소하다가 2002년과 2004년에 다시 많은 귀농인구가 유입되었다.

<표 4>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23,943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부산	15	3	6	2	1	3	-	-	-	-	0	0
대구	52	43	4	3	2	-	-	-	-	-	0	0
인천	141	31	1	16	26	21	1	-	1	-	16	28
광주	67	0	-	4	-	49	3	-	-	5	6	0
대전	3	0	-	2	-	-	-	1	-	-	0	0
울산	31	0	-	12	6	6	-	-	-	-	0	7
경기	1,652	235	469	235	269	224	54	57	18	44	19	28
강원	2,186	272	176	125	470	330	151	151	26	156	227	102
충북	1,552	285	159	146	381	213	35	25	43	56	141	68
충남	2,103	202	104	172	610	382	111	28	74	46	137	237
전북	2,614	237	211	152	791	456	166	127	90	145	166	73
전남	3,848	345	108	160	1,636	1,048	230	77	67	51	37	89
경북	4,924	821	492	448	1,171	689	191	115	218	86	334	359
경남	4,069	793	294	309	902	489	119	243	210	265	203	242
제주	686	18	36	55	144	208	93	56	22	31	16	7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90년 이후 귀농현황자료'

⑵ 귀농인의 영농 종사분야별 현황

귀농 후 귀농인의 영농 종사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종 분야가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원예가 13.2%, 축산이 11.6%를 차지하였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2002년은 축산 종사자의 비율이 2위였으나, 1997년은 과수가 2위였고, 원예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위였다. 2003년과 2004년은 경종 다음으로 기타가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귀농인들이 경종을 비롯한 전통적인 영농분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농 시도를 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귀농인의 영농 종사분야별 현황

구분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23,943(100)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경종	13,020(54.4)	1,271	1,197	1,084	4,001	2,236	533	533	360	432	723	650
원예	3,150(13.2)	575	204	204	692	621	214	104	87	141	142	166
과수	2,251(9.4)	349	233	207	504	353	89	68	98	69	135	146
축산	2,782(11.6)	698	257	172	556	427	146	102	123	77	98	126
기타	2,740(11.4)	392	169	174	656	481	172	73	101	166	204	152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90년 이후 귀농현황자료'

⑶ 귀농자의 연령별 현황

귀농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40대가 27.4%, 50대가 16.1%를 차지했다. 90년부터 2002년까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40대 귀농인이 1위를 차지했고 2004년에는 50대가 1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별 귀농인구의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귀농인의 노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귀농인의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23,943 (100)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29이하	1,960 (8.2)	257	111	105	809	361	65	38	62	64	34	54
30~39	9,993 (41.7)	1,444	681	711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40~49	6,551 (27.4)	736	596	492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0~59	3,860 (16.1)	534	477	334	659	422	155	187	149	201	423	319
60이상	1,579 (6.6)	314	195	199	175	52	28	46	62	121	200	187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90년 이후 귀농현황자료'

⑷ 2004년 경북 귀농 현황

2004년도 경북 각 시군별 귀농가구를 살펴보면, 1위는 상주로서 39가구가 귀농해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봉화가 30가구 9.0%, 영양이 28가구 8.4%를 차지해 경북 북부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주종사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종이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과수가 21.6%, 원예가 11.4%, 축산이 7.5%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주의 경우 경종보다는 과수가 종사비율이 높았고 영주 역시 과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 2004년도 시군별, 주종사 분야별 귀농가구 수

시군	합계	경종	원예	과수	축산	기타
포항	9	5	-	2	-	2
경주	17	7	5	-	3	2
김천	20	8	1	8	-	3
안동	16	9	1	4	2	-
구미	2	2	-	-	-	-
영주	26	11	-	9	1	5
영천	14	8	-	2	3	1
상주	39	13	2	18	6	-
문경	9	4	-	4	-	1
경산	0	-	-	-	-	-
군위	16	4	2	6	3	1
의성	20	11	-	6	2	1
청송	6	3	1	2	-	-
영양	28	15	8	-	1	4
영덕	13	4	2	1	1	5
청도	16	6	5	3	1	1
고령	7	6	-	-	-	1
성주	13	3	5	2	1	2
칠곡	7	-	3	2		2
예천	20	15	2	-	1	2
봉화	30	25	1	3	-	1
울진	4	4	-	-	-	-
울릉	2	2	-	-	-	-
계	334	165	38	72	25	34
구성비(%)	100	49.4	11.4	21.6	7.5	10.2

자료: 경상북도청 농수산국 내부자료

2004년도 경북 각 시군의 연령별 귀농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50대로서 전체 중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가 28.7%, 60대가 20.4를 차지했다. 그리고 30대 이하는 전체의 18.9%를 차지해 청년귀농인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상주의 경우 40대 이하

가 66.6를 차지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봉화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63.3%를 차지해 노령 귀농인이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2004년도 경북 각 시군의 연령별 귀농 현황

시군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포항	9	-	-	2	4	3
경주	17	-	-	-	11	6
김천	20	-	2	6	8	4
안동	16	-	4	4	7	1
구미	2	-	-	-	1	1
영주	26	-	7	9	6	4
영천	14	-	8	4	1	1
상주	39	1	9	16	5	8
문경	9	-	1	5	2	1
경산	0	-	-	-	-	-
군위	16	-	3	4	7	2
의성	20	-	4	2	11	3
청송	6	-	2	3	1	-
영양	28	-	6	9	4	9
영덕	13	2	1	2	7	1
청도	16	1	1	4	9	1
고령	7	-	1	3	3	-
성주	13	-	1	4	2	6
칠곡	7	-	1	4	1	1
예천	20	-	4	6	5	5
봉화	30	-	4	7	10	9
울진	4	-	-	1	1	2
울릉	2	-	-	1	1	-
계	334	4	59	96	107	68
구성비(%)	100	1.2	17.7	28.7	32.0	20.4

자료: 경상북도청 농수산국 내부자료

한편, 2004년도 경북 각 시군의 사유별 귀농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영농 희망'으로서 전체 중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실직'이 15.6%를 차지했고 '부모 봉양'은 11.4%를 차지했다. 경주, 김천, 청도는 '부모 봉양'이 사유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타 시군은 대부분 '영농 희망'이 1위를 차지했다.

<표 9> 2004년도 경북 각 시군의 사유별 귀농 현황

시군	합계	실직	영농희망	부모봉양	기타
포항	9	4	-	2	3
경주	17	3	4	7	3
김천	20	3	3	4	10
안동	16	1	12	3	-
구미	2	1	1	-	-
영주	26	5	15	3	3
영천	14	3	10	1	-
상주	39	9	26	4	-
문경	9	2	3	1	3
경산	0	-	-	-	-
군위	16	5	6	1	4
의성	20	1	19	-	-
청송	6	1	3	2	-
영양	28	1	25	1	1
영덕	13	1	5	-	7
청도	16	2	5	6	3
고령	7	2	5	-	-
성주	13	-	10	1	2
칠곡	7	3	2	1	1
예천	20	1	15	1	3
봉화	30	3	24	-	3
울진	4	-	3	-	1
울릉	2	1	1	-	-
계	334	52	197	38	47
구성비(%)	100	15.6	59.0	11.4	14.1

자료: 경상북도청 농수산국 내부자료

4. 귀농지원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 관련 지원정책은 귀농교육, 귀농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지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귀농관련 교육의 경우 각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관련 정보교육, 영농 및 경작기술교육, 영농상담,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 무료교육이며 주로 영농 관련 세부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시행의 귀농교육의 경우 주 대상자 이미 귀농한 사람이며 따라서 예비귀농인 혹은 잠재 귀농인이 교육을 받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와 함께 귀농인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혹은 차별화된 교육의 수강 기회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각 시군별 귀농 관련 교육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각 시군별 귀농 관련 교육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농업인교육	기초반, 중급반, 생활개선반, 엑셀반,홈페이지반, 이동버스반	10달간	350명		합천군	관계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2~3일(합숙)	700명		영덕군	교육희망농업인	국비
	소득 작목 기술, 전문 농업, 농기계	2~5일(합숙)			영양군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대부분 무료
	소득 작목 재배기술, 농촌생활자원활용, 전문 농업인	2~5일(합숙)	반당 30명		의성군	은퇴후 귀농희망자,	수요별 개설
	·작목별 심층기술교육 ·농촌자원개발·활용교육 ·농업기계자격증취득 등	10개월간			옥천군	품목별농업인 교육희망농업인	
	소득 작목(초급, 심화), 양봉, 전문농업, e-비즈니스, 농기계	21일간	조사 중		수원시	농업인 또는 교육 희망자	
	·작목별 심층기술교육 ·농촌자원개발·활용교육 ·농업기계자격증취득 등	2~5일(합숙)	700명		안산시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기초반, 중급반	2~5일(합숙)	기간별20명		안성시		토, 일 제외
새해영농교육	종합반, 생활개선, 학습단체, 벼직파재배	한 달간	1,500명		거제군		
		45일간			거창군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	5일간	각 기당 1명		부산시	신규 농업인	1기, 2기
	친환경농업,축산,농촌자원개발	6일간	760명		창원시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복숭아, 감	3일간	450명		경주시		
		1월~2월	2,500명		영덕군	희망 농업인	
		1월~2월	5,700명		포항시	희망 농업인	
	영농기술, 농촌생활자원	30일간	3,720명	74회	남제주군		
	감귤, 특작, 채소, 친환경농업, 여성농업인교육	하루씩		8회	북제주군		
	시책교육,감귤재배기술,병해충,토양관리, 생활개선 교육, 시범교육, 한라봉 재배기술	22일간			서귀포	희망 농업인	
		한 달간	2,150명	24회	제주시	농업인, 일반인	
	벼,고추,사과,배,인삼,생활개선 등	13일간	총 2,000명	23회	보은군	농업인	시범강의
	영농기술분야	9일간	2,500명		옥천군	농업인	
	친환경농업, 벼, 고추, 양송이, 느타리, 표고, 한우, 양돈, 사슴, 농촌여성	16일간	3,500명		보령시	농업인	
	영농기술 반(벼, 한우등), 생활기술(소비자) 반	15일간	2,000명	18회	광주시		
	식량작물,영농설계,생활개선,가정원예,친환경농업 등	14일간	1,600명	24회	남양주시		
	친환경벼농사·채소,생활개선, 웰빙농업 등	하루씩	70~200명	6회	수원시	희망 시민	
	식량작물반, 품목기술반, 농촌생활자원반, 농업인단체반 등	약 한 달간	50~150명		양주시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정보화교육	자체교육-기초종합 중급교육-농업정보등	4일간	자체교육 중급교육		울진군		- 300명 - 120명
	정보화리더 교육	회당 3일간	35명	3회	청송군	농업인 및 경영주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이메일, 인터넷 검색등	2월~11월	160명		포항시	정보화 교육 희망자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활용등	5일간	20명		부여군		
	초급:컴퓨터기초/ 중급:문서작성/ 고급:엑셀,농산물유통 등	1기-13기 기당 4일	각 기당 15명		서천군		
	사이버마켓구축 반/ 농산물출하정보반/ 농촌지도자정보화 반	3일간			제천시		
	- 정보화의 농업활용 방안 - 농산물 전자상거래 이용 및 성공사례 - e-농장경영	2일간	25명		음성군		선착순 선발
	윈도우체계(윈도우XP),문서작성(한글2002), 인터넷검색활용, 전자메일등록 및 활용 등.	9일간	20명		남양주시	농업인	선착순 교육
	윈도우 기초, E-mail 사용	10일간	20명		수원시	수원시농업인/전업주부	
	농업 정보전문사이트검색 및E-mail 활용						
	기초반, 중급반	4일간	과정당20명		안성시	불명	
정보교육	컴퓨터 새내기. 한글타자 연습. 문서작성 등	3일간	50명	1기, 2기	거창군	불명	
	기초반:컴퓨터 기초 중급반:인터넷 농업정보활용	5일간	각 반별 20명		경산시	불명	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정보 활용, 인터넷 활용, 컴퓨터 활용,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정보검색	각 기당 3일	기당 15명	1~6기	상주시	불명	
		2~12월	100명		영덕군	정보화교육 희망자	
	컴퓨터 사용 기초, 한글 문서 작성 및 꾸미기, 인터넷 농업정보 활용	5일간			문경시	불명	
	컴퓨터 활용 반 농업정보 활용 반	각 2일간		각2회	봉화군	불명	
	기초과정, pc활용과정, 홈페이지 심화과정	8일간	160명 (반별 20명)		영주시	희망농업인	선착순 접수
	컴퓨터 인터넷 활용 및 농업정보검색법 등	3일간	15명		영천시	마을주민	이동 정보화 교육
	인터넷농업정보검색활용법등	4일간	17명		영천시	농대생 및 희망농업인	
	컴퓨터 활용, 농업정보 활용, 인터넷 심화, 이동 교육	6일간	180명	9회	성주군	희망농업인	
영농기술교육		3~4일간(합숙)	90명(각)		영덕군, 포항시	불명	7기 14과정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사이버농업 경영자과정					예천/청송		인터넷 교육
		두 달간	500명 내외		보은,영동, 청원,단양, 대전시청, 김포시 양주시	농업인	3기
	오이, 고추, 토마토, 수박, 딸기, 느타리버섯, 사과, 배, 국화, 농산물유통 특강과 인터넷 e-비즈니스				안성시		2기
화상 영농교육					남양주시	농업인	
원격영농 상담	상담	평일 2시간씩 운영		총 40회	하동군		
					고령시	농업전문가 농업인	
농기계 교육		(총)1일~2주			영덕군		총131,520명
	농기계구조, 운전조작요령, 정비수리기술, 안전사용요령 등	5일간	16명		제주도청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약 한 달간		16회	옥천군		
	기본지식과 관계없이 기초부터 교육	2주간(합숙)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운기,이앙기, 콤바인,트랙터
	·고장이 많은 기종의 취급조작 및 자가 정비교육 ·승용 및 소형기종 중심의 취급조작 및 작업 기술교육	하루	100명		수원시	농업인	
	농정 및 농기계시책, 교통안전 운행, 운전조작 및 정비수리기술 등	각 기당 5일	각기당 1명		진해시		1기, 2기
영농설계 교육	축산-가축질병, 채소-병해충, 생활개선, 친환경농업, 사과·고추-재배관리	하루씩 4시간/1일		6회	청송군		
	농정시책 및 지역농업 발전방향, 농업인 의식개혁 등(고추, 배, 환경농업에 대해)	약 2달간	30~150명	14회	칠곡군		
친환경농업 기술	·농산물 친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환경농업 실천기술	하루			안성시	예비농업인, 독농가 등	

교육	내 용(과정)	기 간	인원수(명)	횟 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농촌 여성 교육	생활요리, 양재, 한문교실, 피부관리공예, 스포츠댄스 등	2개월	130명		영주시		6과목
	궁중음식, 전통병과, 천연염색, 민요, 원예, 요가, 정보화 교육 등	주로 한 달	16~25명	10회	수원시	수원시내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	수강료 무료 재료비 선납
귀농 교육		1주일 (합숙)	350명		영덕군	신규 취농인중 농기계운전, 정비기술습득 희망자	
경영컨설팅교육	경영능력수준 진단분석, 농가경영개선, 품목별연구회 발전 방향 등	7월~8월	200명		포항시	농가 컨설팅 희망대상자	
					고양시	교육 희망자, 귀농희망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이해 및 실천사례 중심 교육	하루			안산시	시설원예농가	
경영정보화리더과정	e-비즈니스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9일간		3차	대전시	홈페이지 운영 농가 경영주	국비: 615,000원, 자부담:130,000원
			30명		김포시	농업인	
가정원예 교육	분재, 관엽, 난, 국 화	약 5달간	120명		성남시	성남시민	가정원예교육
여성생활기술과학교육	궁중음식, 혼례음식, 토속음식, 김치밑반찬, 일상복 만들기, 규방공예, 천연염색	20일간	180명		성남시	희망 여성	재료비 : 자부담 주1회 2시간 실습
	장의 우수성, 장의 유래와 종류, 장 담그기, 장 관리법	2일간	100명	2회	성남시		전통 장 담그기
	생활개선회(음식반)	15일간	15명		시흥시		월과채 외 11종
	생활개선회(염색반)	두 달간	20명				천연염색이론 및 명주머풀러 만들기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외소득 및 농산물가공기술, 현지 문제해결 중심의 농작업 환경개선, 전통생활 문화, 식문화, 소비자 교육 등 전문분야별 교육		총 1,080명	23회	안성시	생활개선회원, 향토음식연구회원, 여성농업인, 농촌주민	9과정
여성능력개발교육			총 220명	7회			4과정

자료: 강대구(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한편,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정착자금은 2000년에 잠시 제공되었다가 취농창업자금과 종합자금제로 통합되어 전국 차원의 별도 자금은 없는 실정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귀농자를 위한 영농창업자금의 지원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및 농업종합자금제에 따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농업 취업에 관련된 각종 형태의 자금이 있으며 이는 신규창업 지원과 40대 이후의 창업자금 지원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자금제로 나누어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창업농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귀농교육연수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1> 각 시군별 귀농자금 지원현황

자금명	대상자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귀농자 정착 지원 사업			2천만원/1인 내외			해남군	
			2천만원/1인			신안군	
						진도군	
	타시도에 거주하는 40세 이하(1965.1.1 이후 출생자)	총1,000백만원				완도군	
						장성군	
	현재35세 미만으로 농어촌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여성		1인당 20~100백만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	4.0%	5년거치10년 균분상환	제주도	
정착 자금	35세 미만 귀농인		정착자금 2,000만~12,000만원 융자			양구군	
농가경영종합자금	35세 미만					원주시	
	35세 이상 귀농자		영농필요자금 융자				
농어촌 진흥사업금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단체	400억원	개인 : 2억 원	시설자금 2%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영양군 ,영천시	
			농어업인 조직: 5억 원	운영자금 2.5%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학사농업인	210억원	개인 : 5천만 원	연리 2% (학사농업인은 연리 1%), 연체 이율 10%	시설자금: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무안군	
			단체,학사농업인, 명품사업 개소당 2억원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개인 50백만 원 단체 200백만 원이내	2%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신안군	

자 금 명	대상자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 후견인		창업농 1인당 50만원 지원, 연간 500만원 한도 후견인 지급			양양군	
농업인턴제 사업	인턴 선도농가		인턴 1인당 월50만원,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500만원 한도 선도농가에 지급			양양군	
	인턴					경주시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현장실습비 50%이내 월 50만원까지 지원)			완도군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 지원비			1인당 월 30만원			장성군	
농림사업 투융자계획	관내 농업·임업인,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 등					군위군 영주시	
창업농지원 사업	현재 35세 미만인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여성		1인당 20~100백만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	4.0%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	상주시	100%국고 융자금
후계농업인 육성						고성군 무안군	
후계농업 경영인사업	병역필,면제자,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여성중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자		1인당 20~100백만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	4.0%	5년 거치10년균분상환	성주군	
농업종합 자금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1인당 20~50백만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	3.0%	시설자금:3년 거치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2년 거치3년균분상환 농기계구입 자금:1년 거치1~7년균분상환 운영 자금: 2년이내 일시 상환	울진군	

자 금 명	대상자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						해남군	
귀농자농촌 주택 융자지원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		20-30평(3,00만원), 18-19평(2,000만원), 15-17평(1,700만원), 14평 이하(1,500만원)	3.9%	5년 거치 15년분할 상환	신안군	
			20평 기준:동당 3,000만원 융자	3.9%	5년 거치 15년 상환	음성군	농촌주택 개량
		1억 원	동당 2,000만원 융자지원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청주시	2003년도 사업
농촌공가 알선 및 수리비 지원	귀농자로 공가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주택수리를 원하는 자		가구당 최대 250만원			신안군 장성군	
농업인신용 보증제도	귀농자로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신용보증제도 이용을 원하는 자		농림사업 1억 원 이하 대출시 수수료 연간 30만원 지원			신안군	
	신용보증 이용		수수료 30만원 지원			장성군	
귀농학교이수자 수강료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장성군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장려금)	둘째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006년 5월말까지 지원금 10만원(1회)			창원시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금 30만원(1회)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006년 5월말까지 지원금 20만원(1회)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금 50만원(1회)				
	출생자		1인당 30만원(출생신고 후 1년 이후 지급) 3째부터 50만원			합천군	
	농어업인 또는 배우자로서 자녀출산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30일간 도우미 이용, 1인당 30일 사용시 72만원 지원			봉화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촌에 거주		0세(155,500원), 1세(154,500원) 2세(127,000원), 3~4세(79,000원) 5세(158,000원)			함양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 보육료 만0~1세아 127,500원, 만2세아 105,500원, 만3~4세 : 65,500원 만5세아 : 131,000원			북제주군	
			○ 교육비 만3~4세아 국공립유치원 11,000원, 사립유치원 55,000원 만5세아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자 금 명	대상자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당해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경산시	
	경지소유규모 15,000㎡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군위군	
	농업계열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 및 농업인 본인		국·공립대학 2005년 2학기 등록금 50% 지원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50%(87만원 이내) 지원			상주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봉화군	
	대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영양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	145천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영천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매학기 등록금 무이자 융자			보은군	
농어촌 장학생	친권자가 농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친권자 전답 3,900평 이하 학생연령 만 24세 이하(전문대 입학생 및 재학생)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경주시	
	생활이 어려운 농어가 자녀로서 2005 학년도 국내 대학의 전문대 이상 입학생 및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 때까지 지급)			포항시	
전입자 지원	가족단위 전입자 (의료보험지급자 제 외)		이사비 지원 가구당 50만원			합천군	
	타 시도 전입자		차량이전비 지원 31,300원 지원				
	세대구성 전입자		의료보험료지급 월 40,000원 1년간				

자료: 강대구(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이상과 같은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 지원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농어촌 소재 빈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정착하는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지자체는 가 출산장려지원금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추진 중이거나 현재 실시 중에 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차량등록비 지원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귀농희망인을 위한 순환농업시범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30여개 지자체는 귀농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귀농정보의 제공과 함께 귀농이 실제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귀농인을 적극적이고 동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인구감소지역에서 귀농인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귀농현황과 귀농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귀농인 입장에서의 사고를 통해 귀농인들이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제3장 실증분석

제3장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 및 절차

실증분석의 대상은 경북지역 귀농인이며 주로 봉화와 영주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봉화지역의 경우 봉화군에서 실시한 귀농인 대상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영주시의 경우 지역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직접 귀농인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총 7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6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귀농 및 귀농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 설문지의 구성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만족도 및 회귀 의향 문항
-귀농년도 -귀농인 학력 -귀농이전 직업 -귀농인 연령	-전반적 만족도 -귀농 권유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이유
귀농 유형 및 애로 문항	**귀농교육 문항**
-귀농유형 -귀농 동기 -귀농지역 인지 계기 -공공기관의 지원 -마을주민의 지원 -영농종사 종류 -애로사항 -정보수집 방법 -귀농결정에 대한 현재의 심경	-귀농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 필수내용 -영농기술교육 내용 -귀농교육의 근거 -적정 교육 방식 -적정 교육 기간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

2. 실증분석 결과

(1) 귀농 년도

<표 13> 귀농년도 분석결과

년도	1991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무응답	계
빈도(명)	1	1	2	3	8	4	1	9	6	6	2	10	8	4	65
비율(%)	1.5	1.5	3.1	4.6	12.3	6.2	1.5	13.8	9.2	9.2	3.1	15.4	12.3	6.2	100.0

귀농년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4%인 10명이 2005년도에 귀농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2001년이 전체 응답자 중 13.8%인 9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2000년 이전 귀농자는 전체의 29.2%를 차지한 반면, 2000년 이후 귀농자는 전체 응답자 중 64.5%를 차지했다.

(2) 귀농인 학력

<표 14> 귀농인 학력 분석결과

학력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무응답	계
빈도(명)	2	10	27	12	13	1	65
비율(%)	3.1	15.4	41.5	18.5	20.0	1.5	100.0

귀농인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5%인 27명이 고졸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대졸이 전체 응답자 중 20.0%인 1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18.5%인 12명은 전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졸이나 중졸은 각각 3.1%와 15.4%로 파악되었다.

⑶ 귀농 이전 직업

<표 15> 귀농이전 직업 분석결과

직업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노동자	무직	기타	계
빈도(명)	19	23	8	8	1	6	65
비율(%)	29.2	35.4	12.3	12.3	1.5	9.2	100.0

귀농 이전의 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4%인 23명이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회사원이 전체 응답자 중 29.2%인 19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공무원과 노동자가 전직인 응답자는 각각 전체 응답자 중 12.3%인 8명으로 분석되었다.

⑷ 귀농인 연령대

<표 16> 귀농인 연령대 분석결과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계
빈도(명)	3	8	16	28	8	2	65
비율(%)	4.6	12.3	24.6	43.1	12.3	3.1	100.0

귀농인의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1%인 28명이 50대 인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40대가 전체 응답자 중 24.6%인 16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대와 30대도 각각 4.6%와 12.3%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자의 16.9%를 차지하였다.

⑸ 귀농 유형

<표 17> 귀농유형 분석결과

귀농유형	도시->농촌	농촌->도시->타향농촌	농촌->도시->고향농촌	기타	계
빈도(명)	25	8	29	3	65
비율(%)	38.5	12.3	44.6	4.6	100.0

귀농인의 귀농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4.6%가 '농촌에서 도시로 간 후 다

시 고향인 농촌'으로 유턴한 경우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도시에서 태어난 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간 경우가 38.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농촌에서 도시로 간 후 다시 타향인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전체의 12.3%를 차지하였다.

⑹ 귀농 동기

<표 18> 귀농동기 분석결과

귀농 동기	농업의 밝은 전망	영농 승계	노후 대비	사업 실패	도시 생활 회의	전원 생활 및 건강	인간다운 삶	기타	무응답	계
빈도(명)	1	7	9	14	9	15	3	5	2	
비율(%)	1.5	10.8	13.8	21.5	13.8	23.1	4.6	7.7	3.1	

귀농인의 귀농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 귀농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실패'가 21.5%, '노후 대비'와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가 각각 13.8%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향후 농업의 밝은 전망'이나 '인간다운 삶' 때문에 귀농한 응답자는 각각 1.5%와 4.6%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⑺ 귀농지역 인지 계기

<표 19> 귀농지역 인지 계기 분석결과

지역인지 계기	고향으로 U턴	주변사람 소개	타 귀농인 소개	스스로 찾음	처가로 귀농	기타	계
빈도(명)	26	5	5	23	2	4	65
비율(%)	40.0	7.7	7.7	35.4	3.1	6.2	100.0

귀농지역에 대해 알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중 40%가 고향으로 귀농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귀농지역을 스스로 찾았다는 응답이 35.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주변사람의 소개와 타 귀농인의 소개에 의해 귀농지역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7.7%로 조사되었다.

⑻ 공공기관의 지원

<표 20> 공공기관의 지원 분석결과

공공기관 지원	매우 많은 지원을 받음	상당한 지원을 받음	보통	거의 지원받지 못함	전혀 지원받지 못함	계
빈도(명)	0	11	13	11	30	65
비율(%)	0	16.9	20.0	16.9	46.2	100.0

귀농 당시 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2%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16.9%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 중 63.1%가 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⑼ 마을주민의 지원

<표 21> 마을주민의 지원 분석결과

마을주민 지원	매우 많은 지원을 받음	상당한 지원을 받음	보통	거의 지원받지 못함	전혀 지원받지 못함	계
빈도(명)	5	16	23	12	9	65
비율(%)	7.7	24.6	35.4	18.5	13.8	100.0

귀농 당시 마을 주민으로부터 받은 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4.6%가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7.7%는 매우 많은 지원을 주민으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 중 32.3%가 마을 주민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8.5%,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3.8%로 조사되었다.

(10) 귀농결정에 대한 심경

<표 22> 귀농결정에 대한 현 심경 분석결과

귀농결정	매우 잘한 결정	상당히 잘한 결정	보통	상당히 잘못한 결정	매우 잘못한 결정	계
빈도(명)	17	18	25	4	1	65
비율(%)	26.2	27.7	38.5	6.2	1.5	100.0

귀농 결정에 대한 현재의 심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2%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27.7%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53.9%가 지금 생각해도 귀농 결정은 잘 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6.2%는 상당히 잘못된 결정으로 또 1.5%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1) 전반적 만족도

<표 23> 전반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도	매우 만족	상당히 만족	보통	상당히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빈도(명)	5	24	26	9	1	65
비율(%)	7.7	36.9	40.0	13.8	1.5	100.0

귀농 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9%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7%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44.6%가 농촌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13.8%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또 1.5%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12) 귀농 권유 의향

<표 24> 귀농 권유 의향 분석결과

권유의향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보통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계
빈도(명)	4	18	22	13	5	3	65
비율(%)	6.2	27.7	33.8	20.0	7.7	4.6	100.0

다른 사람들에게 귀농을 권유할 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7.7%가 권유할 의향이 상당히 많다고 응답했다. 또한 6.2%는 의향이 매우 많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33.9%가 타인에게 귀농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27.7%는 권유할 의향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13) 도시로의 회귀 의향

<표 25> 도시 회귀의향 분석결과

회귀의향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보통	거의 없다	전혀 없다	계
빈도(명)	2	10	14	22	17	65
비율(%)	3.1	15.4	21.5	33.8	26.2	100.0

현재 시점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3.8%가 거의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26.2%는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60%가 도시로 다시 회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15.4%는 도시로 돌아 갈 의향이 상당히 있다고 응답했고 또 3.1%는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14) 도시 회귀 이유

<표 26> 도시 회귀 이유 분석결과

도시회귀 이유	자녀교육 여건	교통문화 여건	의료여건	낮은소득	고된 농사일	낮은 사회적 인식	기타	계
빈도(명)	15	12	9	16	6	3	2	63
비율(%)	23.8	19.0	14.3	25.4	9.5	4.8	3.2	100.0

현재 시점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향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낮은 소득'이 전체 응답 중 2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여건'이 23.8%, '교통문화 여건'이 19%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고된 농사일'과 '낮은 사회적 인식'은 각각 9.5%와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15) 영농 종사 종류

<표 27> 영농종사 종류 분석결과

영농종류	경종	축산	원예	과수	복합	기타	계
빈도(명)	9	6	2	25	22	1	65
비율(%)	13.8	9.2	3.1	38.5	33.8	1.5	100.0

귀농 후 현재 종사하고 영농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5%가 과수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3.8%는 복합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축산과 원예에 종사하고 귀농인은 각각 9.2%와 3.1%로 조사되었다.

(16) 애로사항

<표 28> 애로사항 분석결과

애로사항	일손 부족	농지 부족	영농기술경험 부족	과다 노동	영농자금 조달	불안정 농산물 가격	농기계 구입과 수리	주민과의 갈등	대출 곤란	판로 개척	종자 구입의 애로	농업 마케팅 부족	계
빈도 (명)	19	14	43	14	30	20	23	9	13	14	2	12	213
비율 (%)	8.9	6.6	20.2	6.6	14.1	9.4	10.8	4.2	6.1	6.6	0.9	5.6	100.0

귀농 후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영농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 전체 응답 중 20.2%로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농자금 조달'이 14.1%, '농기계 구입과 수리'가 10.8%,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9.4%로 조사되었다.

(17) 정보수집 방법

<표 29> 정보수집 방법 분석결과

정보 수집	TV/라디오 신문	인터넷	수집상 도매상	독농가 작목반	전문 지도사	선배 귀농인	지역농업 기술센터	형제 친인척	농축협	기타	계
빈도 (명)	23	36	7	27	12	5	38	7	6	5	166
비율 (%)	13.9	21.7	4.2	16.3	7.2	3.0	22.9	4.2	3.6	3.0	100.0

귀농인이 현재 주로 이용하는 농업관련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전체 응답 중 2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21.7%, '인근 독농가 및 작목반'이 16.3%를 차지했다. 반면 '선배 귀농인' '형제 및 친인척' 그리고 '농축협'은 각각 3%, 4.2%, 3.6%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8) 귀농교육의 필요성

<표 30> 귀농교육의 필요성 분석결과

귀농교육 필요성	매우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보통	거의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빈도(명)	25	24	12	3	1	65
비율(%)	38.5	36.9	18.5	4.6	1.5	100.0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귀농인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6.9%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75.4%가 귀농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4.6%는 교육이 거의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또 1.5%는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9) 귀농교육 중 필수내용

<표 31> 귀농교육 중 필수내용 분석결과

필수교육 내용	귀농정착관련 일반정보 교육	영농기술 교육	농업경영 교육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	판매 및 마케팅 기법교육	전자상거래 교육	기타	계
빈도(명)	14	33	4	2	7	2	3	65
비율(%)	21.5	50.8	6.2	3.1	10.8	3.1	4.6	100.0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어떤 내용이 필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농인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영농기술 교육'이 필수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1.5%는 '귀농 정착 관련 일반정보 교육'이 필수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판매 및 마케팅기법 교육'이 10.8%를 차지했다.

(20) 영농기술교육 내용

<표 32> 영농기술교육의 내용 분석결과

영농기술 교육내용	벼농사	화훼	채소	과수	특용 작물	약용 작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특수 가축	친환경 농업	기타	계
빈도 (명)	3	10	12	31	21	10	15	1	0	9	3	16	4	135
비율 (%)	2.2	7.4	8.9	23.0	15.6	7.4	11.1	0.7	0	6.7	2.2	11.9	3.0	100.0

영농기술교육 중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0%가 '과수'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15.6%는 '특용작물' 에 대해 교육을 희망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21) 귀농교육의 근거

<표 33> 귀농교육의 근거 분석결과

귀농교육 근거	귀농인 대상의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교육기관 자체의 경험에 근거하여	타 기관의 동일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무응답	계
빈도(명)	47	3	2	10	3	65
비율(%)	72.3	4.6	3.1	15.4	4.6	100.0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어떤 것에 근거하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농인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귀농인 대상의 조사를 근거'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15.4%를 차지했다.

(22) 적정 교육 방식

<표 34> 적정 교육방식 분석결과

교육방식	강의식	토의식	사례발표	현장방문	실습	계
빈도(명)	6	5	13	26	15	65
비율(%)	9.2	7.7	20.0	40.0	23.1	100.0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한 교육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0%가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실습'을 통한 교육이 23.1%, '사례발표'를 통한 교육이 20.0%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강의식' 교육과 '토의식' 교육은 각각 9.2%와 7.7%를 차지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23) 적정 교육 기간

<표 35> 적정 교육 기간 분석결과

교육기간	1주일	2주-4주	1월-3월	4월-6월	6개월 이상	계
빈도(명)	11	16	30	2	6	65
비율(%)	16.9	24.6	46.1	3.1	9.2	100.0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교육기간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1%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적정교육기간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2주에서 4주까지'가 24.6%, '1주일'이 16.9%를 차지했다.

(24)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표 36>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분석결과

농업마케팅 교육필요성	매우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보통	거의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빈도(명)	28	28	7	2	0	65
비율(%)	43.1	43.1	10.8	3.1	0	100.0

귀농인 대상의 농산물 판매기법 및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1%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43.1%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86.2%가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3.1%는 농업마케팅 교육이 거의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25)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

<표 37> 귀농교육정보센터 설치 필요성 분석결과

귀농교육 정보센터	매우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보통	거의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빈도(명)	26	24	10	3	2	65
비율(%)	40.0	36.9	15.4	4.6	3.1	100.0

경북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귀농교육을 실시할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6.9%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76.9%가 '귀농교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7.7%는 '귀농교육정보센터'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3.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귀농인 인구통계적 특성 요약과 시사점

귀농년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5.4%가 2005년도에 귀농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2001년이 13.8%로 조사되었다. 또 2000년 이전 귀농자는 29.2%, 2000년 이후 귀농자는 전체 응답자 중 64.5%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년도별 귀농 경향으로 볼 때 향후에도 귀농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인의 학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41.5%인 27명이 고졸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대졸이 전체 응답자 중 20.0%인 1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18.5%인 12명은 전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귀농인의 경우 고졸 이상이 60%를 차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농 이전 직업의 경우, 응답자 중 35.4%가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회사원이 전체 응답자 중 29.2%로 파악되었고 공무원도 12.3%에 이르렀다. 따라서 귀농은 이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아닌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귀농의 질적 수준 고양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의 연령의 경우, 응답자 중 43.1%가 50대 인 것으로 파악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40대가 전체 응답자 중 24.6%로 조사되었고 20대와 30대도 각각 4.6%와 12.3%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자의 16.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중 40대 이하는 전체의 41.5%를 차지하였다. 귀농의 성공 여부가 귀농인의 연령상의 노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패기 있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젊고 패기 있는 귀농인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⑵ 귀농유형, 동기 그리고 지원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귀농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44.6%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간 후 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다가 다시 고향인 농촌으로 유턴한 경우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도시에서 태어난 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간 경우가 38.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농촌에서 도시로 간 후 다시 타향인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전체의 12.3%를 차지하였다. 즉 농촌 출신의 귀농인이 전체의 56.9%이고 도시 출신의 귀농인은 38.5%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생활 경험이나 농사의 경험이 없는 도시 출신의 귀농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이는 향후 귀농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정책이 수립된다면 그래서 농촌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도시 출신의 귀농인력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 출신과는 상이한 경험과 사고를 가진 도시 출신의 잠재 귀농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과 홍보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 23.1%가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 귀농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업 실패'가 21.5%, '노후 대비'와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가 각각 13.8%를 차지하였다. 즉 다수 귀농인들은 도시 및 도시생활이 주는 삭막함, 비인간성 그리고 건강위협요소들을 피하고 농촌에서의 삶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생활과 자연친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삶을 위해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노후를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여유롭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귀농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로 사료된다. 한편, 사업실패로 인해 귀농하게 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런 귀농인들의 경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위축감 혹은 자신감 결여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지역 인지 계기를 조사한 결과, 40%의 응답자가 고향으로 귀농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스스로 찾았다는 응답이 35.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주변사람의 소개와 타 귀농인의 소개에 의해 귀농지역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7.7%로 조사되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났고 또 친인척들이 있으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향을 귀농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향과 관계

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귀농지역을 탐색하고 결정했다는 응답도 35%를 차지했는데 이는 귀농을 유인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특혜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처럼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잠재 귀농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귀농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 당시 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63.1%가 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으로부터 받은 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2.3%가 마을 주민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귀농인들이 귀농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만 지자체 등의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귀농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⑶ 만족도, 권유의향, 도시회귀의향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귀농 후 현재 시점에서의 귀농인의 심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9%가 지금 생각해도 귀농 결정은 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7.7%는 귀농을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수의 귀농인만이 귀농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귀농 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4.6%가 농촌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15.3%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귀농하기 전의 기대치와 귀농 후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농촌 생활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농촌 생활만족도가 귀농 결정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귀농을 후회한다고 응답하는 것은 귀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의 자인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이상으로 귀농 결정을 잘 한 것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귀농인들의 높은 귀농결정 자부심과 만족도를 유지하고 또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관 및 단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족한 소비자가 재구매에 나서고 또 충성고객이 되듯이 특정 지역에서의 농촌생활에 만족한 귀농인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동시에 잠

재 귀농인들에게 우호적인 구전을 전파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축적된다면 특정 지역의 귀농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은 명확할 것이다.

타인에게 귀농을 권유할 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9%가 타인에게 귀농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27.7%는 권유할 의향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다고 응답해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권유의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만족과 권유의도 혹은 구전의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경우 농촌 생활 만족도에 비해 낮은 권유의향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귀농인 개인별 심층면접을 통해 심리적 요인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도시로 다시 회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18.5%는 도시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향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낮은 소득'이 전체 응답 중 2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여건'이 23.8%, '교통문화 여건'이 19%를 차지했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농촌 생활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결국 농촌생활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도시로 회귀할 의향은 없다는 응답자의 심경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귀농인으로 하여금 도시 회귀를 고려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낮은 소득과 자녀교육이었는데 이는 예상한 결과로서 향후 귀농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귀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에 그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⑷ 종사 영농, 애로사항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현재 종사하고 영농 종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38.5%가 과수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3.8%는 복합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축산과 원예에 종사하고 귀농인은 각각 9.2%와 3.1%로 조사되었다. 과수와 복합영농이 전체 응답의 72.3%를 차지했는데 과수의 경우 FTA와 관련하여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

존의 생산 및 판매방식과는 상이한 차별화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합영농의 경우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한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잡다한 백화점식 영농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영농 경험이 일천한 귀농자로서 이러한 복합 영농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과 경험(주로 실패를 통해)을 획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지역실정 및 기후에 부합하고 또 고소득 창출도 가능한 특정 분야에의 집중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체계화된 지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 후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영농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 전체 응답 중 20.2%로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농자금 조달'이 14.1%, '농기계 구입과 수리'가 10.8%,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9.4%로 조사되었다. 결국 고향이 농촌이던 도시던 관계없이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이야말로 귀농인의 가장 큰 애로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농을 위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영농경험을 전수해 줄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의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귀농 멘토링 제도의 실시 혹은 귀농지도 전문가 풀의 확보와 운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귀농인이 주로 이용하는 농업관련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전체 응답 중 2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21.7%, '인근 독농가 및 작목반'이 16.3%를 차지했다. 현재 귀농인들은 지역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후에도 귀농인의 정착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전문 부서나 팀을 신설하거나 혹은 확장해서 귀농인 교육과 지원에 있어서 질과 양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선배 귀농인은 3%를 차지해 정보수집 채널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선배 귀농인들의 조언이나 경험 전파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접촉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식 혹은 비공식의 모임, 단체 등이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이나 회합이 어렵다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또 정보를 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권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⑸ 귀농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필수과목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귀농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4%가 귀농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귀농인들은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지자체 혹은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 교육 및 지도를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농인들의 교육에 관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특정 지역의 민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귀농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고려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 부설 귀농교육센터의 운영 혹은 대학 위탁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필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농인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영농기술 교육'이 필수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1.5%는 '귀농 정착 관련 일반정보 교육'이 필수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판매 및 마케팅기법 교육'이 10.8%를 차지했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귀농 후 가장 큰 애로사항인 '영농기술 및 경험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판매도 생산이 있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귀농인들은 우선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영농기술교육 중 특히 '과수' 분야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귀농인들이 현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과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특용작물'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욕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⑹ 교육의 근거와 기간, 귀농교육정보센터의 필요성 관련 결과 요약과 시사점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근거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귀농인 대상의 조사를 근거'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15.4%를 차지했다. 따라서 향후 귀농 교육프로그램의 입안 시에는 관련 전문가가 귀농인 대상의 교육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종료 후 교육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실시해 교육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귀농 년도별, 영농경험 유무별 그리고 관심 분야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입안 및 실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귀농 교육프로그램의 적정 교육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1%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적정교육기간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인들의 전문화되고 심도 있는 귀농교육에 대한 욕구로부터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총론적이고 거시적인 것보다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의 확보와 함께 단계별 심화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판매기법 및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2%가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귀농교육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판매기법 교육과 함께 귀농인들에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개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장밀착형 귀농교육을 실시할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76.9%가 '귀농교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귀농인을 현재 다수 확보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귀농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귀농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 귀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된 귀농인에게 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선후배 귀농인들이 모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귀농인의 유치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귀농 및 귀농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경북지역에 적합한 귀농인력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귀농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들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범위는 귀농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귀농년도, 귀농인 학력, 귀농이전 직업, 귀농인 현재 연령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만족도 관련 항목으로 전반적 만족도, 귀농 권유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의향, 도시로의 회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귀농유형, 귀농 동기, 귀농지역 인지 계기, 공공기관의 지원, 마을주민의 지원, 영농종사 종류, 애로사항, 정보수집 방법, 귀농결정에 대한 현재의 심경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귀농교육 관련 항목으로 귀농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 필수내용, 영농기술교육 내용, 귀농교육의 근거, 적정 교육 방식 및 기간, 농업마케팅 교육의 필요성,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먼저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젊은 귀농인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도시출신의 귀농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향후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정책의 수립을 통해 농촌 출신과는 상이한 경험과 사고를 가진 도시 출신의 잠재 귀농인력을 유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향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귀농지역을 탐색하고 결정했다는 응답이 35%를 차지했으며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특혜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처럼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잠재 귀농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귀농 ·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각종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귀농인들의 높은 귀농결정 자부심과 만족도를 유지하고 또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관 및 단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농촌생활에 만족한 귀농인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동시에 잠재 귀농인들에게 우호적인 구전을 전파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축적된다면 특정 지역의 귀농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은 명확하다. 다섯째, 귀농인으로 하여금 도시 회귀를 고려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낮은 소득과 자녀교육이었는데 향후 귀농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귀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에 그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여섯째, 귀농 후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영농기술 및 경험의 부족’ ‘영농자금 조달’ ‘농기계 구입과 수리’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고향이 농촌이던 도시던 관계없이 영농기술과 경험의 부족과 자금조달이야말로 귀농인의 가장 큰 애로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영농경험을 전수해 줄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의 확보 및 활용과 함께 귀농 멘토링 제도의 실시 혹은 귀농지도 전문가 풀의 확보와 운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귀농인들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조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귀농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하면 또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 부설 귀농교육센터의 운영 혹은 대학 위탁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귀농인 대상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농산물 판매기법 및 농업마케팅 교육에 대해서도 귀농인들의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귀농교육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판매기법 교육과 함께 귀농인들에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개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장밀착형 귀농교육을 실시할 ‘귀농교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따라서 귀농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귀농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 귀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된 귀농인에게 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선후배 귀농인들이 모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귀농인의 유치와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대구(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김주현(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14(1). pp. 205-223.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규선 · 박병덕(1997), “U턴 귀농자 장 ·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5권

서만용 · 구자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pp. 145-170

신정수·이병오(1999), “귀농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논문집 제3집

이동하(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철(2000), ″특집/한국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색1-귀농운동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해 토착민으로 살기. 한국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색-1″, 환경과 생명 20. pp.22-31.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변인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대영(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pp.1-26.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농림부 경영인력과(2006), “90년 이후 귀농현황자료”

경상북도청 농수산국(2006), “2004년도 귀농현황자료”

■ 연구자 소개 ■

▪ 이 재 철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동양대학교 기획홍보처장, 비서홍보실장(역)
- 영주시 '새영주 발전기획위원회' 위원(현)
- 영주시 FTA기금 과수산업발전심의위원(현)
-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위원(현)
-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이사(현)
- 동양대학교 경영관광학부 조교수(현)

▪ 이 도 선

-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동양대학교 부총장(역)
- 경북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역)
- 경북 도시계획위원(현)
- 경북 주요업무평가위원(현)
- 영주시 '새영주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현)
-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현)
- 동양대학교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현)